



Market Index / 12일

코스피지수 ▲ 2972.48
+45.10코스닥지수 ▲ 991.33
+21.41유가(WTI, 달러) ▲ 81.22
+2.99

환율(원)

1USD 1211.84
100¥ 1050.89팔매 1170.16
1014.751EUR 1381.65
1CNY 196.28팔매 1327.75
177.60

코로나에 제주 고용지표 새로 썼다

작년 실업률 3.1%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
실업자 1만2000명… 전년 1만명 이어 2년 연속 최대
인구 늘어나며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도 가장 많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 2021년 제주지역의 연간 실업률이 22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실업자도 1만명을 넘기는 등 고용지표를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자영업자는 1년 새 3000명 감소했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취업자는 3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3%

(5000명)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수치인데, 취업자가 38만명이 넘었던 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38만2000명) 이후 두 번째다. 고용률은 67.4%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3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0%(8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숫자만 놓고 보면 지난해 도내 고용여건이 나아진 것

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난해 실업률은 3.1%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3.7%)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9.2% 증가했는데,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5%(7000명) 감소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이 3만3000명으로 1.5%(1000명) 줄었고 나머지 산업에선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8.0%

(2000명) 늘었고, 건설업은 9.6%(3000명) 증가한 3만7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9만3000명으로 2.9%(3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24만9000명가 전년 대비 3.7%(9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7만2000명으로 7.8%(1만3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만명, 2만7000명으로 각각 5.5%(3000명), 2.9%(1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1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0%(4000명) 줄었는데 자영업자가 10만8000명으로 2.5%(3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5.1%(1000명) 감소한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문미숙기자

■ 제주항공 ‘2022년 떠나고 싶은 여행지’ 조사

“하와이·괌보다 제주에 가고 싶어요”

응답자 15%가 제주 꼽아
“환경 좋고 자유여행 장점”

올해 가장 떠나고 싶은 여행지로 제주도가 해외 유명 관광지를 제치고 첫손가락에 꼽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5일간 제주항공의 공식 SNS를 통해 ‘2022년에 떠나고 싶은 여행지’를 주제로 댓글 달기 설문을 실시한 결과 124명(15%)이 가장 떠나고 싶은 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101명(12.2%)이 괌, 85명(10.3%)이 하와이, 34명(4.1%)이 사이판을 희망했다. 이번 설문에는 828명이 참여해 제주항공의 취향노선에서 여행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행지나 국가 등 본인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댓글에 다는 형태로 진행했다.

1위에 오른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여행지이지만 여행의 제약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고 자유여행이 가능한 관광자원이 갖춰져 있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여행지이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해외여행의 대체지와 신혼여행지로 다시 각광받으면서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200만명을 넘기도 했다.

2위로 선정된 괌은 따뜻한 날씨와 스쿠버다이빙 등의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쇼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여행지다.

또 4위로 꼽힌 사이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트래블블이 적용돼 사이판 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대표 여행지다. 제주항공은 오는 29일부터 인천~사이판 노선을 다시 운항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본(27명, 3.3%)과 대만(27명, 3.3%), 스위스(25명, 3%), 방콕(24명, 2.9%) 등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결과를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여행지와 현재 갈 수 있는 여행지를 함께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상황이 나아져 고객들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한국은행, 17~28일
설 명절 신권 교환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변성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화폐(신권) 교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폐 교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건물 내 입장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야외 대기인원도 2m 거리두기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한다. 화폐교환 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을 감안해 야외 대기는 오후 3시에 마감한다.

1인당 1일 화폐 교환액은 5만원권 100만원, 1만원권과 5000원권 각 50만원, 1000원권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기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동전 교환업무는 일시 중단된다.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화폐교환기간 때 시간당 영업장과 로비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다”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호텔에서 열린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다’라고 적힌 손팻대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초지 1만5637ha… 1년새 38.5ha 감소

2021년 한 해 제주지역에서 초지 38.5ha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초지관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지면적은 3만

2388ha로 전년 대비 0.5%(168ha)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국토 전체 면적의 약 0.3%를 차지하는 초지는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1995년

(6만6301ha)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 제주지역 초지는 1만 5637.5ha로 전년 대비 38.5ha 감소하며, 56.7ha 줄어든 강원도 다음으로 감소면적이 컸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시 감귤 타이백 지원단가 현실화

0.5ha당 1333만원… 재난방지시스템 지원도

서귀포시가 올해 감귤재배농가의 피복자재(타이백) 단가를 현실화하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올해산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노지 감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본예산에 8억원을 투입해 일반농가의 지원단가를 기존의 0.5ha당 1054만1000원에서 올해 1333만1000원으로 279만원 인상한다. 또한 원지정비농가에 대해서는

1345만8000원에서 1558만1000원으로 212만3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9일까지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에서 이뤄진다.

시는 올해산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과 지역의 감귤산업발전을 위해 피복자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하우스 화재 및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재난방지시스템 196대를 지원한다. 접수는 19일까지 읍면동에서 이뤄진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가스식·청진기식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설날맞이모두마드리 행사!!
1/14~2/30일까지 선택소 보청기 주문고객
20만원 상당 천호식품 산삼배양근 드립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지사장(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검구이 2층
북동쪽 바닷가 방향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마일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서귀포시정소식

제24주기 소암현중화 선생 추모제 II 알림
□ 전 시 명 : <소암복원素菴墨緣> : 꺾고·빛고·쓰다>
□ 전시기간 : 2021. 12. 28(화) ~ 2022. 2. 6(일)
□ 전시장소 : 소암기념관 전시실
□ 전시작품 : 복공예가 양승필, 도예가 고원종, 소암 선생의 작품 60여 점
□ 관람시간 : 화요일~일요일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방법 : 인터넷 사전예약 및 현장입장 병행
□ 전시문의 :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 064-760-3511, 3512)

2022년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22. 1. 5(수) ~ 1. 19(수)
□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업체, 협동조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 사업량 : 34개소 내외
□ 개소당 사업비 : 500만원(보조 450만원, 자부담 50만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등록증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760-2882)

도립서귀포예술단 ‘2022 신년음악회’ 개최 알림
□ 공연일시 : 2022. 1. 20(목) 19:30~
□ 공연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 공연내용
- 1부 : 도립서귀포합창단 ‘신년 합창 모음곡’ 등
- 2부 : 도립서귀포관악단 ‘엑소더스’, ‘관소리 춘향가’ 등
- 3부 : 도립서귀포예술단 ‘아! 대한민국’ 등
□ 입 장 료 : 무료
□ 티켓예매 : 서귀포시 E-Ticket 통해 인터넷 예매, 1인 4매
※추후 서귀포시청 및 도립서귀포예술단 유튜브 채널 통해 영상 공개
□ 공연문의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064-760-2486, 도립서귀포예술단 ☎ 064-739-0641)